

규제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f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 Focu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Seong-Rak Choi(haihabar@gmail.com)

요약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규제 신뢰 | 정부 신뢰 | 규제 신뢰 영향 요인 | 정부 신뢰 영향 요인 |

Abstract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government trust, but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about regulation trust. So,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speciall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rveys on 1,000 peop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are a academic ability, the benefit of regulation, the specialty of regulation, the fairness of regulation, and necessity of government. And there are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regulation trus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want to increase the execution and accommodation of regul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get the regulation trust. And to get the regulation tru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 trust besides the specialty and the fairness of regulation.

■ keyword : | Regulation Trust | Government Trust | Regulation Trust Influence Factor | Government Trust Influence Factor |

* 본 연구는 2016년도 동양미래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3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4월 09일

수정일자 : 2017년 04월 06일

교신저자 : 최성락, e-mail : haihabar@gmail.com

I. 서론

최근 새로 시행된 가장 대표적인 정부 규제 중 하나로 담뱃갑 디자인 변경이 있다. 담뱃갑 디자인에 담배를 피워서 발생한 신체 이상, 병 등을 표현하게끔 하는 규제이다. 이 규제는 담뱃갑에 혐오스런 담배 피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담배를 보다 덜 피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이다. 하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이 담뱃갑 규제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담뱃갑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 새로운 혐오스런 담뱃갑 디자인으로 인하여 담배 소비가 감소되지도 않았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규제의 집행력도 낮은 한계가 발생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정부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및 신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규제 신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규제 연구들은 주로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규제가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규제를 신뢰하는 기반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제 신뢰에 대한 연구도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신뢰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규제 신뢰에 적용하고, 정부 신뢰가 규제 신뢰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신뢰도를 보이는지를 의미한다[1][2]. 정부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때 정부 정책이 실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높을 때 정책 집행이 용이하고,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낮을 때 정부 정책은 그 효과성이 저하된다[3].

하지만 정부의 신뢰가 정부의 역할, 기능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비민주적인 독재 정권들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독재정권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는 연관성이 낮다는 반증이 된다[4]. 즉 정부 신뢰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 정부의 효율성과는 연관성이 적을 수도 있다.

정부 신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와 능력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는 정부가 옳다는 믿음, 정부의 정의로움, 정당성 등과 관련된 신뢰이다. 이에 대하여 능력적 측면에서의 신뢰는 정부의 전문성, 문제 해결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신뢰이다. 이와 같이 정부 신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정부 신뢰의 주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Renn & Levine(1991)는 정부의 능력, 정부 정책의 공정성 여부, 일관성, 목적 타당성 등을 정부 신뢰의 주요 요소로 제시한바 있다[5]. Kasperon 등(1992)은 전문적인 능력, 예측 가능성, 보호 여부를 신뢰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논의하였다[6]. 단순히 능력만 있는 경우에는 신뢰를 받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나를 돌보아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신뢰도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또한 Poortinga & Pidgeon(2003)은 능력과 의존성, 돌보아주는 정도, 정부의 공정성 여부, 정부가 지향하는 것의 가치성 여부, 정부가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신뢰 여부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대[7].

2. 정부 신뢰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대한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와의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즉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시원(1994)은 경제적 요인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2], 이종수(2001)는 정부의 부패 여부,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능력, 이념의 유사성, 정부 정책의 일관성, 공정성 등을 정부 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파악하였다[8].

서문기(2001)는 정부 신뢰 영향 요인을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9], 정당 간 연합, 경제성장, 사회적 규범 등이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손호중·채원호(2005)는 정부 정책에서의 능력, 일관성, 국민과의 친밀성, 시민들의 참여 여부, 정직성 여부 등이 정부 신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10], 양건모·박통희(2007)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여부에 따라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11].

박종민·배정현(2007)은 정부가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도를 정부의 주요한 신뢰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으며[12], 양건모(2007) 연구에서는 정의,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등이 정부 신뢰에 대한 주요 요소로 제시되었다[13]. 그리고 이양수(2008)는 관료의 행태, 국정운영 평가 등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본 바 있다[14].

3. 규제 신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 신뢰는 정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규제이다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

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5]. 규제와 정책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존재한다. 규제와 정책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 규제는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 그리고 규제는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등과 더불어 정책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정책 중에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부정적 제약’으로 파악된다. 정책 중에서 금지 등 부정적 제약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특별히 규제로 정의된다[16]. 규제와 관련해서 최근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정부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가의 문제이다[15]. 시민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순응, 불응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규제에 대한 신뢰가 규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성을 가지는데 비해, 규제 신뢰 또는 규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규제 신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Putnam(2000)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수준에 대한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17]. 이용규·김지수(2014)는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신뢰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등이 사회적 규제에 대한 믿음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8]. 또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규제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도 존재한다[19]. 그리고 최성락(2016) 연구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도덕성 등 규제의 주요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20].

규제는 정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인 규제에 대한 별도의 신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정부 신뢰가 규제 신뢰에 매개효과로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 및 정책과 관련된 신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Renn & Levine(1991)은 공정성, 전문성, 목적성, 일관성 등을 신뢰의 주요 구성 요소로 논의한바 있다[5]. Kasperson et al.(1992)은 능력과 관련된 전문성, 미래예측성, 공약 등을 신뢰의 주요 구성 요소로 보고, 상대방과의 상호 교류 등도 중요한 신뢰의 요소로 파악하였다[6]. 또한 Poortinga & Pidgeon(2003)은 능력으로서의 전문성, 공정성, 가치성, 의존성, 정부의 통제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7]. 그리고 손호중·채원호(2005)는 정부 신뢰의 주요 요소로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 정책 순응, 피해 감수 의지 등을 논의하였으며[10], 최성락(2016)은 전문성, 기여도, 필요성, 공정성 등을 주요 변수로 하여 신뢰도 등을 파악한 바 있다[19][20].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뢰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여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다. 신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제시된 필요성, 이익성, 전문성, 공정성, 필요성, 협력성 등을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정부 신뢰를 매개 변수로, 규제 신뢰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변수 모형 및 각 변수의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 변수

구분	변수 값	변수 설명	변수 근거
통제 변수	성별	남녀	-
	연령	만 나이	
	학력	초, 중, 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월평균 소득	가계 총소득	
독립 변수	규제 필요성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Poortinga & Pidgeon(2003)

	규제 이익성	규제의 국민 이익에의 도움 여부	Renn & Levine(1991)
	규제 전문성	규제의 전문성 인정 여부	Renn & Levine(1991), Kasperson et al.(1992)
	규제 공정성	규제 처리의 공정성	Renn & Levine(1991), Poortinga & Pidgeon(2003)
	규제 기여도	규제가 사회에의 도움 여부	최성락(2016)
	정부 필요성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최성락(2016)
	정부에 대한 협력성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 정도	Kasperson et al.(1992), 손호중·채원호(2005)
매개 변수	정부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Putnam(2000), 이용규·김지수(2014)
종속 변수	규제 신뢰도	개별 규제에 대한 신뢰 여부	

통제변수에 대한 설문은 기입식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설문은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매개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였다[21].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변수 판정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인과관계 존재
- ②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 존재
- ③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도 인과관계 존재
- ④ 매개변수를 포함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값이, 매개변수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 값보다 작거나 유의하지 않음

등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매개변수 여부를 검증한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규제 신뢰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표본 추출에 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 사항에 대해서는 7점 척도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조사 시점은 2014년 12월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자 기본통계

구분		빈도	비중(%)
성별	남성	504	50.4
	여성	496	49.6
연령대	20대	226	22.6
	30대	268	26.8
	40대	281	28.1
	50대	225	2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0.2
	중학교 졸업	3	0.3
	고등학교 졸업	197	19.7
	2-3년제 대학 졸업	175	17.5
	4년제 대학교 졸업	553	55.3
	대학원 졸업 이상	70	7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기본적 기술 통계 값은 아래의 표와 같다. 7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4점이 중립이고, 4점 이상이 긍정적, 4점 이하가 부정적 응답이다. 규제의 필요성, 이익성, 기여도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규제의 전문성,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표 4.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규제의 필요성	5.15	1.10	1	7
규제의 이익성	4.53	1.24	1	7
규제의 전문성	3.97	1.36	1	7
규제의 공정성	3.74	1.36	1	7
규제의 기여도	4.39	1.25	1	7
정부의 필요성	5.55	1.16	1	7
정부에 대한 협력성	4.36	1.26	1	7
정부에 대한 신뢰도	3.61	1.64	1	7
규제에 대한 신뢰도	3.63	1.34	1	7

2. 상관관계

독립변수, 매개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값은 모두 0.5 이하로 산출되어 공분산 문제는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5.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2	-.016	1								
3	.185***	.043	1							
4	-.023	.135***	.223***	1						
5	-.088***	.063**	-.088***	.041	1					
6	.006	.047	.007	.020	.464***	1				
7	-.024	.070**	-.040	.046	.235***	.411***	1			
8	-.038	.105***	-.020	.034	.337***	.465***	.459***	1		
9	.015	.154***	-.034	.111***	.403***	.268***	.226***	.249***	1	
10	.018	.197***	.008	.115***	.247***	.340***	.437***	.372***	.370***	1
11	.050	.221***	-.045	.045	.112***	.273***	.481***	.317***	.256***	.630***

- 1: 성별
- 2: 연령대
- 3: 학력
- 4: 월평균 소득
- 5: 규제 필요성
- 6: 규제 이익성
- 7: 규제 전문성
- 8: 규제 공정성
- 9: 정부 필요성
- 10: 정부협력
- 11: 정부 신뢰도

3. 회귀분석

3.1 독립 변수 분석

통계변수와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독립변수 분석

구분	종속변수: 규제 신뢰		t값
	B	표준오차	
(상수)	0.792	0.221	3.588***
성별	0.053	0.055	0.964
연령대	-0.012	0.026	-0.468
학력	-0.076	0.031	-2.437**
월평균소득	-0.020	0.015	-1.371
규제 필요성	-0.057	0.030	-1.911*
규제 이익성	0.074	0.028	2.698***
규제 전문성	0.203	0.029	7.027***
규제 공정성	0.493	0.029	16.984***
규제 기여도	0.039	0.027	1.450
정부 필요성	-0.057	0.027	-2.112**
정부에 대한 협력성	0.168	0.026	6.477***
빈도	1,000		
R제곱	0.606		
수정된 R제곱	0.601		
F 값	138.022***		

통계 변수 중에서는 학력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으며 독립변수 중에서는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95% 이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2 매개 변수 분석

최종적으로 위 독립변수 분석에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매개 변수 분석

구분	종속변수: 규제 신뢰		t값
	B	표준오차	
(상수)	0.827	0.210	3.937***
성별	0.019	0.053	0.361
연령대	-0.051	0.025	-2.054*
학력	-0.053	0.030	-1.787**
월평균소득	-0.016	0.014	-1.141
규제 필요성	-0.020	0.028	-0.702
규제 이익성	0.076	0.026	2.895***
규제 전문성	0.180	0.028	6.527***
규제 공정성	0.408	0.029	14.128***
규제 기여도	0.047	0.026	1.856*
정부 필요성	-0.074	0.026	-2.880***
정부에 대한 협력성	0.032	0.028	1.124
정부 신뢰	0.228	0.022	10.134***
빈도	1,000		
R제곱	0.643		
수정된 R제곱	0.639		
F 값	148.103***		

매개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 신뢰가 도출되었다.

정부 신뢰의 매개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만으로 분석했을 때의 유의미한 변수 및 계수 값과,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를 포함했을 때의 계수 값 변화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독립변수 분석에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에 대한 협력성이 유의미한 변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 분석에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 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인 정부에 대한 협력성이 무의미한 변수로 변경되었으며, 규제 공정성의 경우 계수 값이 감소하였다.

표 8. 매개 분석에서의 계수 변화

구분	독립변수 분석에서의 유의미한 계수 값	매개변수 분석에서의 유의미한 계수 값	계수 변화
학력	-2.437**	-1.787**	유사 (1 이하)
규제 이익성	2.698***	2.895***	유사 (1 이하)
규제 전문성	7.027***	6.527***	유사 (1 이하)
규제 공정성	16.984***	14.128***	감소
정부 필요성	-2.112**	-2.880***	유사 (1 이하)
정부에 대한 협력성	6.477***	1.124	유의미> 무의미
정부 신뢰	-	10.134***	-

이러한 계수 변화는 Baron and Kenny(1986)의 평가 기준에 적합하므로[21],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와 관련하여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협력성과 규제 공정성과 관련하여 매개 효과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 정부신뢰가 개별 규제의 신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 부처는 자신이 시행하고자 하는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각 부처가 준비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무리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부 자체의 신뢰성이 낮으면 개별 부처가 시행하는 규제의 신뢰성도 낮아진다. 정부 자체의 신뢰도를 높일 때, 각 부처들의 개별적인 규제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모든 부처에서 시행하는 개별적 규제의 집행 가능성과 순응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를 준비하는 각 부처들은 규제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타당성 및 정부와의 협력성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즉 규제를 통하여 정부의 긍정성 등을 같이 제고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규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제의 전문성 및 이익성 등의 사항이며, 정부 협력성 등과 같은 요소들은 정부 신뢰에 대한 매개 효과만 가진다. 즉 정부 각 부처는 규제의 내용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제 실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부수적인 사항들은 규제 신뢰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자체 내용의 정당성, 그리고 그 규제를 실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V. 결론

이상에서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규제 신뢰에 대하여 정부 신뢰가 매개효과의 기능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의 전문성이나 규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즉 규제가 전문적이지 않고, 규제가 국민 모두를 위한 다기보다 이해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식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총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규제의 세부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전체적인 규제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개개인의 학력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력이 높을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학력이 낮을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셋째,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었다. 규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규제 신뢰도가 올라갔으며, 규제가 전문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볼 때 규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에는 규제 신뢰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 자체에 크게 초점을 두는 경우 세부 정책인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넷째, 정부 신뢰도는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정부 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공정성 및 정부에 대한 협력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매개적 효과를 지닌다. 규제 공정성과 정부에 대한 협력성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효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규제에 대한 신뢰이다. 국민들이 해당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규제를 따를 때,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다고 믿을 때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규제 내용을 지키고자 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를 만드는 각 부서에서는 규제의 내용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해당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무리 개별 규제의 내용이 타당하고 적정하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 정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그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진다. 즉 정부는 자기가 시행하고자 하는 개별 규제의 타당도와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실제 정책 현실에서는 각 개별 규제의 내용을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정부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개별 규제에 대해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규제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신뢰는 모든 규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 그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부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여러 규제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1] B. Barber, *The Logic and Limit of Trus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 [2] 이시원,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제3권, pp.61-84, 1994.
- [3] Jeff R. Clark and Dwight R. Lee, “The Optimal Trust in Government,” *Eastern Economic Journal*, Vol.27, No.1, pp.19-34, 2001.
- [4] Geert, Bouckaert and Steven van de, Walle,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69, No.3, pp.329-343, 2003.
- [5] Renn and Levine, “Credibility and trust in risk communication,”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Vol.4 of the series Technology, Risk, and Society* pp.175-217, 1991.
- [6] R. Kasperon, D. Golding, and P. Tuler, “Social distrust as a factor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and communicating risk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8, pp.161-187, 1992.
- [7] Wouter, Poortinga and Nick F. Pidgeon, “Exploring the Dimensionality of Trust in Risk Regulation,”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Vol.23, No.5, pp.961-972, 2003.
- [8] 이종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제32권, pp.67-86, 2001.
- [9] 서문기,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5호, pp.119-147, 2001.
- [10] 손호중, 채원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pp.87-114, 2005.
- [11] 양건모, 박통희, “정책과정 참여와 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와 의사, 약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7.
- [12] 박종민, 배정현,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pp.117-143, 2011.
- [13] 양건모,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문*, 2007.
- [14] 이양수,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pp.533-553, 2008.
- [15]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 [16] 최성락, “정책과 규제: 개념적 차별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9.
- [17]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18] 이용규, 김지수,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적 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pp.1-24, 2014.
- [19] 최성락,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5, pp.148-156, 2016.
- [20] 최성락, “연령별 규제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3, pp.586-595, 2016.
- [21] Baron and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Copyright, Vol.51, No.6, pp.1173-1182, 1986.

저자 소개

최성락(Seong-Rak Choi)

중신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정책학 일반, 규제 정책